DECEMBER
CHANGWON SUPPORT CENTER FOR FOREGN WORKERS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CFC

바다무지개

2015년 12월 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이며 24일 밤, 즉 그 전날 밤이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초대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루를 전날의 일몰로부터 다음 날 일몰까지로 쳤기 때문에 이 전야인 이브가 중요시되었다. 그리스도가 12월 25일 오전 0시에 탄생하였다고 하는 확증은 없으며,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만들어낸 신화(神話)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는 신약성서 《마태오의 복음서》나 《루가의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날짜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3세기에 들어와서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에는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3월 21일(춘분), 12월 25일 가운데 어느 하루가 선택되었다. 로마 교회(서방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 354년경부터로 보이며, 조금 뒤인 379년부터 그리스교회(동방교회)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교도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동지(冬至)의 축일, 다시 말하면 태양숭배의 습속을 이용하여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농경사회의 로마에서는 '사투르날리아'라는 농경신 새턴의 제일(祭日)이 12월 21~31일(혹은 17~24일까지, 또는 1월 1일)까지 계속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 신은 본래 그리스에서 왔다고 전해지는 고대 이탈리아의 신으로서, 크로노스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그리스에서 와서 더 오래된 야누스의 도움으로 '황금시대'의 즐거운 날을 보내다가 문명화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새턴은 특히 사람들에게 대지의 경작법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새턴은 재배와 포도의 채집과 관련되어 있다. 이 크로노스 신(로마에서는 사투르누스신)을 제사하는 '사투르날리아' 기간에는 노예도 자유롭게 주인의 연회에 참석할 수가 있으며, 혹은 주인이 거꾸로 노예에게 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령·성별·계급의 구별 없이 연회·경기·행렬 따위가 벌어졌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서로 선물을 교환하였다. 이 기간 중에서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난 다음으로 태양이 소생하는 날이라고 하여 특히 기념되었다. 또 '미트라의 축일'도 이 날이었다. 미트라는 본래 페르시아인의 신으로서 태양과 동일시된 인도·유럽 민족의 옛 신성(神性)이었다. 이것이 로마 사람들, 특히 군인·병사 사이에서 숭배되어 유럽 각지에 전파되었다. 이것은 태양신, 불패의 태양으로서 숭경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켈트 민족의 제사(祭司) 계급이었던 드뤼도들도 그들의 높은 성소에서 이 기쁜 날을 축하하고, 또한 게르만인도 이 날을 유쾌하게 축하하였다. 초대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농경력상의 성대한 제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을 결합시킨 것이 크리스마스이다.

그리고 중세의 크리스마스에서는 교회에서의 의식과 농신제에 따르는 가장행렬이나 소요가 뒤섞여 행하여졌다. 그것은 카니발의 요소도 있고, 일종의 혼성적 종교행사, 싱크리티즘이었다. 교회 내에서의 그리스도 탄생의 예배를 별도로 하는 크리스마스의 민간행사에는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비(非)그리스도교적인 많은 풍습이 현재까지 전승해오고 있다. 미사는 초기부터 그리스도 교회에서 한밤중에 장중하게 행해졌다. 가톨릭국인 프랑스 등지에서는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축일이며, 특히 어린이들이나 가족중심의 축일이었다. '크리스마스의 할아버지' 즉 산타클로스의 민속에 따라, 차차 세속화하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엘》이라고 불리는 성가곡, 이른바 크리스마스캐럴은 종교적이고 시적이며, 소박하고 불가사의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어떤 종파나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의식을 행하고 있으나, 드물게는 스코틀랜드의 지극히 청교도적인 장로교회파(프레즈비티리언)와 같이 특별한 예배를 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 지방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이 날을 휴일로 하지 않고 1월 1일이 크리스마스 대신으로 되어 있다.

크리스마스 기간의 중심적인 장식물은 크리스마스 트리이다. 이것은 프랑스·이탈리아·에스파냐 등지에서도 교회 앞에 높이 세워지는 겨울의 미관이다. 집집마다 가지가 곧은 푸른 나무를 잘 손질하여 통같은 데 꽂아 양초·완구·인형·종이로 만든 종·과자 따위를 달아매고, 또 가지나 뿌리 위에는 눈송이를 본떠 솜을 얹는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방안에 들어설 때에 양초에 불을 붙인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전구가 쓰인다. 나무도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인조제품들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결부하여 산타클로스의 설화와 전승이 있다. 이것은 3세기 말, 어린이를 보호하는 소아시아의 성 니콜라스의 이름이 네덜란드어로 성 클라우스로 발음된 것이, 네덜란드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잘못 불려 성녀(聖女:산타)를 뜻하는 것 같은 산타클로스라는 애칭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타클로스 이야기와 행사는 오래된 기원(起源)이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일로 보여지며, 지금의 산타클로스 복장은 1931년 미국의 코카콜라 광고에서 그린 그림으로 유래된 것이다. 그 밖에 크리스마스에 연유한 전설이나 풍습은 상당히 많고, 크리스마스 행사는 그리스도교국뿐만 아니라, 점차 국제적인 연중행사가 되고 있다.

국적 : 미얀마(Myanmar)
성명 : Yan Naing Htun(나임툰)
나이 : 28세(1987년생)

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위치한 미얀마

국명	ㅇ 미얀마 연방 공화국(구 버마)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Burma) - 7개 State와 7개 District로 구성 - 1989년 버마에서 미얀마(Strong & Fast 의미)로 국명 변경
위치	ㅇ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위치 ㅇ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면적	676,56km2(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약 6배)
기후	ㅇ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 4℃, 연평균 강우량 2,513mm) - 여름: 2월 말 ~ 5월 중순 - 우기: 5월 하순 ~ 10월 말(거의 매일 비) - 겨울: 11월 초 ~ 2월 중순(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유사)
수도	네피도(Nay Pyi Taw)
인구	ㅇ 6,098만 명(2013년 4월 정부 발표) ㅇ 가용 노동인구(3,735만 명)
주요 도시	ㅇ 양곤, 만달레이, 삔마나, 빠떼인, 바고, 삐 등 - 양곤: 현 경제 중심지(교역의 80% 수행)인 경제수도 - 네피도: 2005년 11월부터 행정부가 이전한 새로운 행정수도 - 만달레이: 제2의 도시로 중북부 경제 중심지 및 불교중심지이며 영국 식민 통치 전 제국의 마지막 수도 - 빠떼인: 양곤에서 서쪽으로 160Km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도시로 쌀 및 수산물(새우) 생산 중심지

민족	ㅇ 버마족(68%), 샨족(9%), 카렌족(7%), 라카인족(4%), 소수민족(카친, 몬, 친족 등) 135 종족 ㅇ 기타 중국계(3%), 인도계(2%)
[언어	미얀마어(정부, 기업인, 호텔 종사자들은 영어 구사하나 대부분은 영어구사 불가), 소수민족 고유어
종교	불교 89.4%, 기독교 4.9%, 이슬람교 3.9%, 힌두교 0.5%, 토속신앙 1.2%, 기타 0.1%
건국(독립)일	1948년 1월 4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실권자)	ㅇ 국가원수: 떼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 - 취임일: 2011년 4월 1일(5년 임기-1회 연임 가능) ㅇ 부통령 - 사이 마욱 칸(Dr. Sai Mauk Khan), 취임일: 2012년 8월 15일 - 냔 툰(Nyan Tun), 취임일: 2011년 4월 1일

❋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미얀마의 화폐단위는 Myanmar Kyat(Kt : 짜트)

GDP	US$ 594.27억(2013년 추정치)
실질 경제 성장률	6.8%(2013년 추정치)
1인당 명목 GDP	US$ 914.94(2013년 추정치)
실업률	5.4%(2012년 추정치)
물가 상승률	6.5%(2013년 추정치)
화폐단위	Myanmar Kyat(Kt:짜트)
환율	US$1 = Kt 983(2013년 12월 18일 기준, 중앙은행 고시환율)
외채	US$ 55.59억(2012년말 추정치)
외환 보유고	US$ 69.77억(2012년말 추정치)
산업구조	농림수산업(29.2%), 공업(32.1%), 무역 및 서비스업(38.7%)(2011-2012년 회계연도)

교역규모	ㅇ 2011-2012 회계연도(4.1일부터 차년도 3월말까지) - 수출 : US$91.35억 - 수입 : US$90.35억 - 무역수지 : US$ 1억 ㅇ 2012-2013 회계연도(4.1일부터 차년도 3월말까지) - 수출 : US$89.77억 - 수입 : US$90.68억 - 무역수지 : -US0.91$억
교역품	ㅇ 수출: 천연가스, 콩류, 섬유류, 수산물, 목재류, 쌀 ㅇ 수입: 정유, 기계 및 운송장비, 철강 및 금속제품, 전자제품 및 부품류

❋ 주: 실업률의 경우, 미국 CIA 자료에 의할 경우 5.4%로 추정되나, 미얀마 하원의 발표에 따르면 37%로 추정

❋ 자료: IMF,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CIA, 미얀마 중앙은행, 국가기획경제 개발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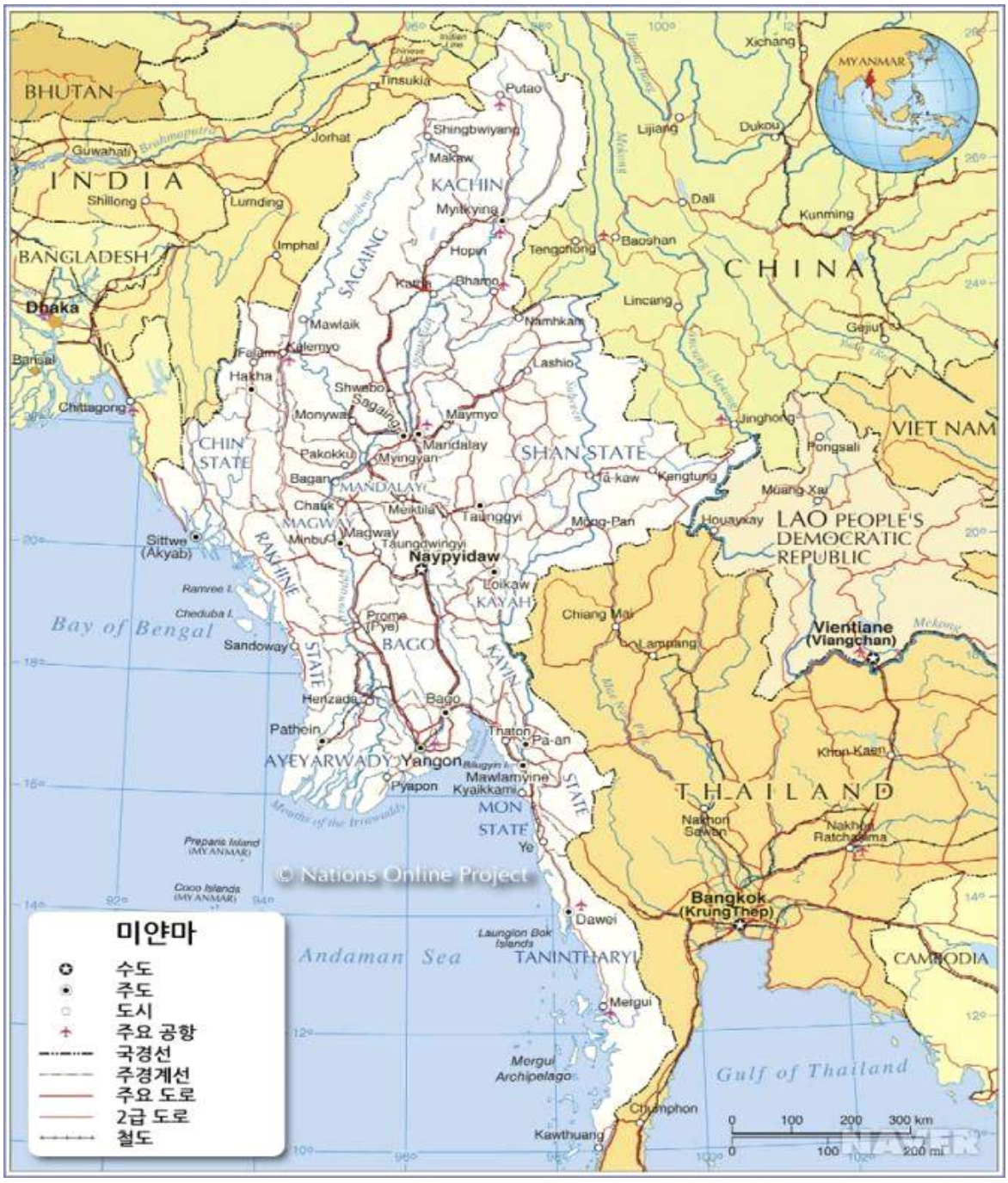
미얀마에 한국 교포가 약 2,500명

체결협정	무역협정('64 체결, '67 개정), 뉴스교환협정('72) 항공협정('78), 임업약정('99), 이중과세방지협정('02), 서비스무역협정('07) 외교관 및 특별여권 비자면제협정('11)
교역규모	ㅇ 2012년 (단위 : US$ 백만) - 수출 : US$ 1,331 - 수입 : US$ 351 - 무역흑자 : US$ 980
교역품	ㅇ 우리나라 수출: 철강제품, 산업기계, 직물,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등 ㅇ 우리나라 수입: 섬유제품, 농산물, 임산물, 신변잡화, 수산물 등
투자교류	ㅇ 미얀마 투자위원회 승인 기준(2013년 11월 말 기준) - 84건, 승인(US$ 30억 4,468만) ㅇ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2013년 9월 말 기준) - 236건, 승인(US$ 42억 90백만), 투자(US$ 17억 67백 만)
교민	총 교민 수: 약 2,500명(2013년, 외교부 추정치)

❋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미얀마 개요 (kotra 정보 - 미얀마, 2013. 12. 31)

미얀마는 타일랜드, 라오스, 중국,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미얀마는 인도차이나반도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경 92°~102°, 북위 10°~28°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안다만(Andaman) 해와 마타반(Martaban) 만, 남서쪽으로는 벵골(Bengal) 만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타이(1,800㎞), 라오스(235㎞), 북쪽으로는 중국(2,185㎞), 서쪽으로는 인도(1,463㎞) 및 방글라데시(193㎞)와 접경하고 있다. 접경 지역의 총길이는 5,876㎞에 이른다. 해안선의 길이는 2,051㎞에 달하며, 면적은 676,577㎢로 한반도의 약 3배 규모이다.



[사진 1] 미얀마 지도

2. 미얀마의 기후

미얀마의 기후는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기후이다. 그러나 북부 지방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인다. 연평균 기온은 27.4℃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2,513㎜다. 11월~2월 중 평균 최저 기온은 17℃이고, 3월~5월 중 평균 최고 기온은 40℃ 이상이다. 여름은 2월 말 ~ 5월 중순이고, 겨울은 11월 초 ~ 2월 중순이다. 미얀마의 겨울 날씨는 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유사하다. 우기는 과거에는 5월 중순 ~ 10월 중순이었으나, 1970년대 말 이후 지난 30여 년간 5월 말 ~ 9월 중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3. 미얀마의 자연재해

2011년 3월 24일 미얀마 동부의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황금의 삼각지대) 지역에서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하여 70여 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약 400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300여 채의 주택, 30여 개 종교 시설, 11개 학교, 병원 및 일부 공공 시설이 붕괴되었다.

2008년에는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가 미얀마를 강타하여, 주택 45만 채가 파괴되고 35만 채가 손상되었다. 피해 지역의 의료 시설 75% 및 4000여 개 학교가 파괴되었고, 60만 헥타르의 농지가 범람하였으며, 50%의 가축이 익사하였다. 이로 인해 2008년도 추정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2.7%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기(5월~9월)에 열대성 소나기가 심하게 내리는 경우는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배수 시설이 열악하여 도로가 범람하는 경우가 많고, 강풍으로 가로수가 갑자기 부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환절기(3월~4월, 10월~11월)에는 평상시보다 뎅기열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질성 장염도 발병한다. 또한 길거리에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광견병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미얀마의 역사

미얀마의 역사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종족의 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미얀마에는 서력기원을 전후하여 인도로부터 농업 기술과 불교·힌두교가 전해졌고, 이후 몬족·모족·미얀마족이 차례로 흥기하였다. 18세기에는 몬족이 다시 미얀마족을 정복하였으나, 이내 미얀마족이 전국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다고웅이라고 불리던 도시를 랑군(오늘날 양곤)으로 개명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미얀마는 영국의 침입을 받아 쇠락해 갔고, 1885년 영국 식민지로 전락해 1886년 영국령 인도에 편입되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1948년 1월 4일 영연방으로부터 탈퇴하여 완전한 독립 국가가 되었다.

미얀마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미얀마의 고대 역사와 왕조 시대

1) 고대(BC 5세기 ~ AD 11세기 중반)
2) 파간 왕조(1056년~1287년)
3) 몽골의 침공과 분열(1287년~1531년)
4) 퉁구 왕조(1531년~1752년)
5) 콘바웅 왕조(1758년~1886년)

2) 미얀마의 식민지 시대와 사회주의 시대

1) 영국·일본 식민지 시대(1886년~1948년)
2) 버마 독립과 우누의 사회주의(1948년~1962년)
3) 버마식 사회주의(1962년~1988년)

3) 미얀마의 군사 정부 시대와 민선 정부 출범

1) 민주화 운동과 군사 정부의 등장(1988년~2002년)
2) 군사 정부의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추진(2003년 ~ 2011년 3월)

(가) 영국·일본 식민지 시대(1886년~1948년)

콘바웅(Konbaung)왕조의 세력 확장은 결과적으로 당시 인도 내 영국 세력과 충돌을 가져왔다. 제1차 전쟁(1824년~1826년), 제2차 전쟁(1852년), 제3차 전쟁(1885년)을 겪은 뒤 콘바웅왕조는 결국 패망하였고 1886년 영국령 인도에 편입되었다. 1937년 4월 영국 의회가 개정 버마통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버마는 인도에서 분리되어 직할식민지와 자치령의 중간적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버마에 남기관(南機關)을 설치하여 '아웅 산(Aung San)' 장군을 중심으로 한 '30인의 동지'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버마 독립의용군을 조직하여 1942년 3월 양곤(Yangon)을 점령하였다. 이후 1945년 8월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일본은 버마를 지배하였다. 버마 독립을 위해 영국군 및 일본군과 무장 투쟁을 벌여 국민적 영웅이 된 아웅 산 장군은 1947년 7월 각료회의 도중 암살되었다. 이후 우누(U Nu)가 버마 임시정부의 총리가 되었다. 1947년 12월 영국 의회는 '버마 독립 법안'을 가결하였고, 독립 기반이 형성되었다.

(나) 버마 독립과 우누의 사회주의(1948년~1962년)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영국 연방에서도 탈퇴하였다. 우누(U Nu)의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AFPFL, 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이 집권해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대외적으로는 엄정 중립주의를 표방하였다. 우누 총리는 1962년 3월 네윈(Ne Win) 총사령관의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10여 년간 재임하면서 신생 국가의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공산당과 소수민족의 반란에 따른 내전 등으로 집권 기간 중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 버마식 사회주의(1962년~1988년)

1962년 3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네윈(Ne Win)은 1963년 1월 마르크스주의와 불교적 정신 가치를 접목시킨 이론인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발표하여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였다. 버마식 사회주의 개혁 작업의 핵심은 국유화 추진이었다. 그러나 생산·서비스 등 전 경제 분야에 걸친 국유화 추진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민간 부문의 활력 감소를 초래해 경제 침체 현상이 지속되었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1년 11월 네윈 대통령은 건강 악화와 국민들의 평화적 정권 교체 열망으로 우 산 유(U San Yu)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자신은 당 의장직만 보유하였다. 그러나 네윈은 카리스마적 지도력으로 계속 실권을 장악해 왔다. 하지만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 등에 따른 국민적 불만은 1988년 3월부터 수개월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유발하였고, 군인과 민간인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네윈은 1988년 7월 사임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얀마의 역사 (미얀마 개황, 2011. 8., 외교부)

5. 미얀마의 주민

1) 미얀마의 민족

미얀마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연방국이다. 주요 민족은 버마족(Burma族)으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카렌족(Karen族), 카친족(Kachin族), 친족(Chin族), 샨족(Shan族), 카야족(Kayah族), 몬족(Mon族), 라카인(Rakhine族) 등 소수민족이 25%를 차지한다. 나머지 5%는 중국계와 인도계 등이다. 미얀마에서는 소수민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 미얀마의 언어

미얀마어가 공용어이며 양곤(Yangon) 일부 지역에서는 영어가 통용된다. 만달레이(Mandalay)와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어가 통용되고, 타이 접경 일부 지역에서는 타이어가 통용된다.

3) 미얀마의 종교

미얀마 사람들의 89.4%가 불교도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기독교(4.9%), 이슬람교(3.9%), 토속신앙(1.2%), 힌두교 0.5% 등을 신봉한다. 미얀마 불교는 상좌부(上座部) 불교로, 5세기에 인도 및 스리랑카에서 남부 미얀마 몬족(Mon族)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11세기 몬족을 침공한 파간(Bagan)왕조가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여 전국에 불교가 전파되었다.

1961년 우누(U Nu)가 집권할 당시 불교를 국교로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였으나, 1962년 네윈(Ne Win)이 집권하면서 불교의 국교화를 폐지하였다. 1980년 불교 정화법을 제정하여 각 지방 단위에 따라 승려들의 조직인 위원회를 결성하고 승려들을 등록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사진 2] 맨발 스님들의 행렬

미얀마 사람들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예를 들어 작명, 교육, 결혼, 장례식 등을 모두 승려와 상의한다. 이처럼 불교는 미얀마 사람들의 사상 및 행동 면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7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3개월간 금식기(Lenten Season)를 갖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 또한 매달 4일간 있는 금식일에는 휴교를 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들은 정오부터 다음날 일출 때까지 금식을 하는 등 종교 의식을 거행한다.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도이지만 이슬람교도와의 갈등이 심각하다. 1983년 모울메인(Moulmein) 시에서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에 세력 다툼 및 감정 충돌이 일어나 상호간에 사원 방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통행금지가 선포되었고 정부군의 진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1997년 3월에는 만달레이(Mandalay) 시에서 불교 여신도가 이슬람교도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슬람 사원의 일부가 파손되는 등 한때 양 종교가 긴장 국면에 돌입하였다. 이때 역시 정부의 강력한 통행금지 조치 등으로 진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교와 이슬람교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사진 3] 맨발 스님들의 생활모습

6. 미얀마의 사회풍속

미얀마에서는 남자가 결혼하면 처가에 가서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다. 어른 앞에서는 허리를 구부리고 지나갈 만큼 미얀마 사람들은 윗사람을 공경한다.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정부와 국영 기업에는 여성 직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가족 중시, 장유유서 등 한국과 정서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사진 4] 전통시장의 모습

그리고 미얀마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한 행사나 모임을 제외하고는 정장을 입지 않으며, 연중 기온의 변화가 그다지 심하지 않으므로 계절별 복장을 갖출 필요가 없다. 하의는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남녀노소 모두 론지(longyi)라는 치마를 즐겨 입는다. 론지는 미얀마 전통의상으로, 발목까지 오는 긴 천을 허리에서 여며 입으며 남녀의 여미는 방법이 다르다. 또한 미얀마 사람들은 구두를 신지 않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는다.

[사진 5] 손기술이 뛰어난 미얀마 장인

[사진 6] 사회 참여 여성장인

미얀마의 음력 신년 초하루는 양력 4월 중순 무렵이며, 초하루 전 4일간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면서 액을 씻는 틴잔(Thingyan) 축제(물 축제)를 벌인다. 그리고 미얀마에는 악수하는 풍습이 없어서 지금도 지방에서는 서로 마주 보며 말로 인사를 교환한다. 미얀마에서는 왼손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권하는 것은 결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동물을 숭상하는 사람이거나 불교도 중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선호한다.

7. 미얀마의 문화

남인도 상인들이 오랫동안 미얀마 남부 몬(Mon) 지방을 왕래해 온 탓에 미얀마의 종교, 문학, 건축, 공예, 연극 등 문화적인 면에서 인도의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불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힌두 문화의 영향은 그다지 받지 않았다. 고대 미얀마는 인도 및 중국 문화권과 접촉이 있었으나, 중국과는 윈난성(雲南省, Yunnan)을 중심으로 접촉이 있었을 뿐, 중국 문화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미얀마 정부는 문화부를 설치하여 전통 문화 보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진 7] 소수민족의 독특한 목에 링 모습

8. 미얀마의 관광

불교 국가인 미얀마는 사찰, 불탑, 고궁 등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이 많으며, 미얀마 관광공사 및 여행사에서 관광을 주선한다.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의 외국인 입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4월 ~ 2010년 3월 회계연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9만 명이다. 주로 불교 신자 및 골프 관광객이다. 미얀마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인 방문객은 2008년 12,362명에서 2009년 12,509명, 2010년 1월 ~ 10월 14,308명으로 차츰 늘어 가는 추세다.

[사진 8] 까비예 파고다

미얀마커뮤니티 리더 나임툰(Yan Naing Htun) 고향은 양곤[Yangon]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랑군(Rangoon)으로 알려졌다가 1989년 양곤으로 개칭하였다. 이라와디강 삼각주의 동부, 북서쪽의 흘라잉강과 북동쪽의 페구강이 합류한 삼각강의 연안에 위치하며, 남쪽 마르타반만(灣)과의 거리는 약 30km이다. 열대 몬순기후로 연평균 기온 27.3℃, 연강수량 2,530mm이다. 기온은 12~2월이 가장 낮아 평균 24.3℃인 반면 4~5월은 29℃ 이상으로 매우 덥다. 비는 대부분 여름의 계절풍과 함께 오며 6~9월에 전체 강수량의 80%가 집중적으로 내린다.

< 양곤의 기후 표>

양곤의 기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기온(일평균.℃)	32.2	34.5	36.0	37.0	33.4	30.2	29.7	29.6	30.4	31.5	32.0	31.5
최저기온(일평균.℃)	17.9	19.3	21.6	24.3	25.0	24.5	24.1	24.1	24.2	24.2	22.4	19.0
총강수량(월평균. mm)	5.0	2.0	7.0	15.0	303.0	547.0	559.0	602.0	368.0	206.0	60.0	7.0

(세계 기상 기구(WMO) 발표 자료. 1961-1990년 조사 결과.)

©doopedia.co.kr

본래 몬족(族)의 작은 어촌으로 순례지에 지나지 않았으나, 1755년 중부 버마족의 왕 알라웅파야가 이를 정복하여 '전쟁의 종결'이라는 뜻으로 양곤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후 남부 미얀마의 경제적 중심지가 되었으나, 1874년 영국이 제2차 버마 전쟁의 결과로 남부 미얀마를 합병하고 식민지 통치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바둑판 모양의 시가지를 만들고 정청과 항만을 건설하는 등, 정치·경제·철도·선박운항에 걸친 일대 건설을 추진하였다.

식민지형 국제도시 랑군(양곤)에는 관리직을 독점한 소수의 영국인과 하급군인·하급관리·상인·노동자로 일하는 많은 인도인·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미얀마인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48년 독립과 함께 정부는 외국 세력을 배제하는 폐쇄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고 경제의 미얀마화(化)를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은 대부분 귀국하고, 현재는 완전한 미얀마인의 도시가 되었다. 시가는 미얀마인·인도인·중국인·이슬람교도 등의 거주구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저마다 사원·점포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종래의 정미·제재 외에 강철·약품·방적·조선·정유 등의 국영공장이 신설되어 공업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곤강에는 외국항운과 국내항운의 항구가 있고, 철도는 북부의 만달레이, 북서의 프롬, 남동의 마르타반의 주요 도시로 통하고 있다.

[사진 9] 양곤시청

양곤강 북안의 항만지구 북부에 펼쳐진 구(舊)시가지에는 정부청사를 비롯하여 시청사·재판소·세관 등의 관공서가 있고, 그 북서부에는 의사당과 총리 관저가 있다. 로열호(湖) 연안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으며, 북부의 인야호 남서부에는 넓은 대학지구가 있다.

인문과학대학·의과대학·양곤공과대학 등 여러 대학 및 국립박물관 등이 있다.

✻ 양곤 [Yangon] (두산백과)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

양곤 시가지 북쪽의 언덕 위에는 광대한 정사각형(둘레 426m)의 기단 위에 높이 100m의 황금색 탑 쉐다곤이 빛나는데, 이는 불교 나라 미얀마의 상징이며, 평일에도 참배자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불교 유적지로, 미얀마 불교의 관습과 전통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Shwe'는 금(Golden)을 의미하므로 쉐다곤 파고다는 '금으로 된 다곤의 불탑 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2500년 전 가우타마(Gautama) 부처 생존 시, 미얀마 상인이 8개의 부처님 성발(머리카락)을 얻어 와 이곳에 안치한 후 불탑을 건립하였다.

[사진 10] 쉐다곤 파고다

[사진 11] 쉐다곤 파고다 동문

[사진 12] 쉐다곤 파고다 야경

초기의 쉐다곤 파고다는 약 20미터에 불과했으나 계속 증축되어 현재의 높이는 98미터에 이른다. 1372년 바고(Bago)의 한타와디(Hanthawaddy) 왕조의 빈냐우(Binnya U)가 재건하고, 1455년~1462년에 신소부(Sinsawbu) 여왕이 테라스를 건설했으며, 파고다 상단에서 하단까지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금박을 입혔다. 신소부 여왕의 오빠인 빈냐기안은 파고다의 높이를 90미터로 증축하였다.

역대 왕들이 쉐다곤 파고다에 많은 시설물을 기증하였다. 콘바웅(Konbaung)왕조의 신뷰신(Hsinbyushin) 왕비는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금박을 입히고 파고다를 현재의 높이로 증축하였다. 1788년 싱구(Singu) 왕은 16톤의 동종을 기증하였고, 1841년 타라와디(Tharra-waddy) 왕은 파고다의 북동쪽에 40톤 가량의 동종을 기증하였다.

쉐다곤 파고다 경내에는 '타자웅(Tazaung)'이라는 건물들이 많은데, 이는 1857년 민돈(Min Don) 왕의 명령에 의해 건립한 것으로, 그 안에 많은 불상을 안치하였다. 1895년에 전면 보수하였고, 1931년 화재로 거의 전소되었다가 1941년에 다시 개축하였다. 사원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며, 맨발로만 입장할 수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쉐다곤 파고다

나임툰(Yan Naing Htun)은 미얀마의 엘리트

[사진 13] 미얀마 국기를 든 나임툰

Yan Naing Htun의 집은 양곤 비행장에서 택시타고 1시간반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 홀어머니는 작은 수퍼마켓을 하고 계시며 형제는 누나와 둘뿐이란다. 누나는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 미혼이라 한다.

누나보고 '한국에 시집오면 어떻겠냐?'고 물어 보라 하니 얼굴을 붉히며 빙그레 웃는다. 영어를 전공했으니 한국에 있으면 할일이 너무 많을 듯해서 권해 보았다. Yan Naing Htun은 대학교에서 과학을 전공한 엘리트인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있다가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한국어공부를 학원에서 월 5만5천Kyat(Kt : 짝) 6개월 공부하고 EPS-TOPIK(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한 번에 딱 합격한 수제다. 합격 후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본인은 2년이 되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누나와 본인이 대학교를 다 졸업했으니 어머니 가게가 잘 되나 보다'라고 물으니 대학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자리는 많이 있느냐 물으니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는 많이 있단다.

한국에 오려고 마음 먹게 된 동기에 대하여 물으니 먼저 '한국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니 역시 학구파였다. 내가 슬그머니 '돈을 벌어야 하지 않느냐?' 하니 또 빙그레 웃는다.

Yan Naing Htun은 너무 성실해서 한국에 들어 올 때 계약된 경남 마산합포구 진천면에 있는 한국야나세(뿌리산업체)라는 조선 및 해양기자재, 선박건조 그리고 건설사업을 하는 업체에 처음(2011년 5월 23일 입국)부터 지금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열심히 근무하는 모범적인 성실근로자이다.

회사에 대하여 물어보니 너무 좋은 회사여서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기숙사도 완벽하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되어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근무하기에는 최적의 회사라 한다. 하는 일은 그라인딩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다'고 한다.

회사 자랑이 많아 회식도 하느냐 물어보니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는데 이때 사장님도 참석해 주신다는 말에 회사의 분위기를 감 잡을 수 있었다. '외국인근로자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성심 성의껏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다' 며 회사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임툰(Yan Naing Htun)은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에 가슴설레....

2016년 03월 미얀마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실근로자이므로 한국에 다시 들어 올 수 있다' 며 행복한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있다. '반드시 다시 입국하여 한국야나세 회사에서 일을 더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성실근로자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맘 놓고 귀국할 수 있다며 즐거워했다.

기업개요

회사명	(주)한국야나세 (KOREA YANASE CO., LTD)				
대표자	우 영 준				
설립일	1991년 06월 14일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미더덕로 64				
TEL/FAX	T) 055-271-0784~5 F) 055-271-0786				
E-MAIL	yanase@koreayanase.co.kr				
주요생산품목	LASHING BRIDGE / HATCH COVER / TUG BOAT / CAR DECK				
면 적	제조	토지	26,751.50	건물	6,338.96
	도장	토지	9,918.00	건물	4,293.00

[사진 14] 한국야나세 개요

LASHING BRIDGE

정의

- 대형 Container선에서 다단적치 Container를 안전하게 고박하기 위한 구조물임.
- 화물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컨테이너 수의 증가에 따라 자체의 고박 설비로는 한계에 부딪쳐서 새로운 고박설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컨테이너선의 Bay 사이에 있는 Hatch Coaming 상부에 Lashing Bridge를 장착하여 컨테이너를 잡아주도록 하였다.

HATCH COVER

정의

-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을 위한 화물창의 상부갑판 또는 중갑판에 만들어진 창구를 폐쇄하는 제반 장치를 이르는 말로서 Bulk Carrier, Container, Ore/Oil Carrier 등에 설비된다.
- Pontoon, Side-Rolling, Hydraulic Folding Type 등이 있다.

CAR DECK SYSTEM

정의

- 차량을 최적 적재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CAR DECK이며, Lifeable car deck와 Hoistable Car Deck System이 있다.
- 우리 회사에서는 CAR DECK는 물론이고 Pillar와 M-RAMP 까지 제작 중이다.

[사진 15] 한국야나세 사업영역

귀국하게 되면 친구들을 만나게 될텐데 한국생활에 대해서 말 할 것이 너무 많다 한다. 친구들은 미얀마에서 취업하여 월급을 얼마씩 받고 있는냐고 물으니 '입국 당시(2011년) 11만짝(Kt : 1$=983Kyat, 한국 돈 약 10만원) 정도 받는다며 누나는 회사 입시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약 17만짝(한국 돈 약 1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월급을 받느냐 말하니 친구들보다 20배 이상 받는다. 집에 엄마에게 100만원 정도 보내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사용하며 저금을 하고 있다 한다. 고향 양곤의 땅 값은 너무 비싸서 땅은 사 놓지 못했지만 엄마께 보내 드린 돈은 계속 저금해 놓으셨다 한다.

한국생활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 보았다.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그라인더 작업인데 이제는 많이 숙련이 되어 그리 힘들지 않다 한다. 한국음식은 모두 잘 먹는다. 한국사람은 매우 친밀감이 있고 한국에서의 생활 자체가 재미있어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므로 명절 때 몇일 쉬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물으니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데 부산, 통영, 경주, 서울(남산타워, 용산 전쟁박물관 등), 에버랜드 등을 여행했다며 매우 좋았다고 강조한다.

[사진 16] 토요수업 나임툰
(가운데 왼쪽 2번째)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EWS

2015년 11월 30일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모바일 서비스 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퇴직금 모의계산 모바일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비스는 출국 예정일, 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면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및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 중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언어로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15개국 언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홈페이지(http://www.eps.go.kr)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접속한 후 '퇴직금 차액 모의계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PS 모바일 서비스 이용방법

□ EPS홈페이지 회원 가입 :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eps.go.kr), 회원가입

□ "앱(App)" 내려받기

① 'Play Store' 접속 → '② ' 앱(App)' 내려받기 → ③ 앱 설치완료

□ 퇴직금 모의계산 등

① 어플 로그인 → ② 보험금 예상수령액 조회 → ③ 퇴직금 모의계산 및 차액 산정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EWS

박 대통령,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우승 선수단과 오찬

19번째 종합우승 및 5연패 달성한 선수단의 노고 격려…
"'능력중심 사회' 구축에 많은 역할 당부"

2015년 08월 26일 (수) 10:20:56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3회 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선수, 국제심사위원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9번째 종합우승과 5연패라는 성과로 전 세계에 기능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국가대표선수단을 격려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숙련기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대표선수들에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능력중심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 행사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MVP상(알베르트 비달상)을 수상한 서정우 선수와 우리나라에 제빵 분야의 첫 금메달을 안긴 유재희 선수가 대표로 우승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서정우 선수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1,200명의 선수들 중 최고 득점을 받아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일본·독일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해 우리나라에 3년 연속 MVP상을 선사했으며, 유재희 선수는 전통적으로 제빵 분야가 강세인 유럽선수들과 경쟁해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EWS**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해외 전지훈련 등 적극 투자”

“기능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는 중국은 기능올림픽 우승자를 배출한 학교의 전교생에게 컴퓨터를 선물로 줄 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로 브라질(금메달 11개)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고 19번째 종합 우승과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메달 집계 외에 각 종목 점수를 모두 더한 총점에서는 브라질에 밀려 2위였다.

단장으로 한국팀을 인솔한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59·사진)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선수단에게 해외 전지훈련을 시키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1970년대 했던 것처럼 브라질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기능올림픽을 통해 기능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는 기능인과 기능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 교민 응원도 거의 없었다는 것.

박 이사장은 “2위를 차지한 브라질 측이 과거 우리나라 기능인들이 브라질에서 기능인력을 많이 양성해 준 것에 큰 고마움을 표시했다”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한국 덕분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 스위스 일본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가들은 과거 기능올림픽의 강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참가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또 참가하더라도 메달 집계 순위는 뒤로 밀려나 있다.

[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
꿈같았던 올림픽 종합우승으로 막을 내리다!

[출처] [기특한 기자단/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 꿈같았던 올림픽, 종합우승으로 막을 내리다!|작성자 대한민국 숙련기술인

비행시간 28시간, 시차 12시간...

멀고 먼 이곳 브라질에서 우리 선수들이 시차적응과 싸워가며 경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드디어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폐막식에서 시상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를 수상하며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 폐막식 풍경 전해드리겠습니다.

폐막식을 치루기 위해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들이 모여든 경기장 안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경기장에 흐르는 음악에 맞춰 선수들은 자국의 깃발을 흔들며 연신 춤을 추었고, 관람객 역시 환호와 응원 구호, 파도타기로 선수들에게 화답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폐막식의 진행은 브라질 배우 Otaviano Costa와 여성 모델이자 방송 진행자인 Did Wagner가 맡았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힘찬 진행과 관객들의 환호를 유도하는 소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시상 방식은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시상대에서 이뤄졌는데요. 노란색과 파랑색 시상대에서 번갈아가며 먼저 시상 대상 국가들을 호명하고, 메달 결과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첫 금메달 시상 장면이 궁금하시죠?
가구와 목공 종목이 차례로 시상 대상 국가를 호명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

금메달에 이호준 선수가 호명됐습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수상하는 다른 선수들과도 얼싸안으며 기쁨의 환호를 하는 우리 선수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옆의 파랑색 시상대에서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구제작에 이어 목공 직종의 결과를 기다리던 차승우 선수 역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1등 시상대에 올라 힘차게 환호하는 우리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상식에서 단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 한국의 여성 선수들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화사하고 예쁜 한복 차림으로 시상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화훼 종목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가현정 선수가 예쁜 한복 차림으로 시상대에 올라 태극기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너무도 돋보이고 이쁜 장면이었습니다.

브라질 하면 빠질 수 없는 음악, 바로 쌈바인데요. 폐막식의 중간 중간 브라질의 유명한 그룹 Monobloco가 무대에 올라 신명나는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두 사람도 무대로 나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누구나 삼바를 잘 춘다고 하는데요. 정말 흥이 많은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각국의 '우수 선수'를 호명하는 Best of Nation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력제어의 강민수 선수가 수상했는데요. 어떤 나라도 빠짐없이 기뻐하는 정말 축제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의 Albert Vidal Award, 즉 MVP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총 세 명의 선수가 고득점을 하여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비 부문 서정우 선수도 당당하게 시상했습니다.

알베르트 비달 상은 1995년 도입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경기까지 총 4번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꿈같았던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 뒤 '아부다비'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은 금메달 수상자를 배출하며 좋은 결과를 냈지만, 금메달 수상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 경기를 치룬 우리 선수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출전할 수 있는 국제기능올림픽을 위해 가장 빛나는 시기 청춘을 쏟아부어 노력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회 결과와 상관 없이 앞으로 늘 도전하고 꿈꾸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싸워가며 분투해 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덕분에 국제기능올림픽을 함께했던 우리 기특한 기자단도 정말 즐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특한 대한민국

이 기사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특한 기자단' 소속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출처] [기특한 기자단/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 꿈같았던 올림픽, 종합우승으로 막을 내리다!|작성자 대한민국 숙련기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Vietnam EPS NEWS

한국, 베트남 투자국 1위

2015년 11월 16일

○ 지난 월요일(9일) 해외투자부(FIA)와 계획 투자부(MPI)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올 한해 10개월간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 중 1위가 한국(약 62억 달러)이라고 발표함.

○ 보고에 의하면 동기간 한국은 583개의 새 프로젝트를 등록했는데, 이는 23억 달러에 달함. 또한 257개의 확대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는 39억 달러라고 함.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임.

○ 이어 두 번째 국가로 말레이시아(약 25억 달러)가 뽑혔고, 3위로는 일본(약 14억 달러), 4위로 영국(약 12억 달러)이 자리를 차지함.

○ 지난 10개월간 한국은 16개 부문에 투자했는데, 주로 제조·가공에 투자(90%)하였고, 여기에는 총 56억 달러가 투자되었음. 그 다음으로 전자산업 제조·공급에 투자(3.2%)하였는데, 약 2억 달러가 투자됨.

○ 지리적으로 보면 한국은 총 41개성에 투자하였고, Bac Ninh성의 북부지역에 33억 달러의 투자가 있었음. Dong Nai성에는 4억 달러가, Hai Phong성에는 3억 달러가 투자됨.

○ 해외 투자부(FIA)에 의하면 올해 베트남에 FDI로 약 190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전년대비 40.8%가 증가한 액수임. 반면 FDI관련 지출로는 16.3% 증가하여 110억 달러가 지출됨.

[출처: VietNam News November 10, 2015]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Vietnam EPS NEWS**

한국 베트남의 최대투자국 , 말레이시아 제쳐

2015년 11월 30일

○ 최근 통계총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1월의 한국의 동록자본 400백만 달러 증가로 올 초부터 지금까지 25억 달러를 기록함. 이로 인해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 됨.

○ 구체적으로, 11개월 동안 베트남의 투자한 총 56개 국가들 중, 한국은 25.156억 달러로 전체 신규등록자본의 18,6%의 비중을 차지. 이어서 말레이시아(24.453억 달러, 18%), 영국(12.692억 달러, 9,4%), 일본(12.675억 달러, 9,4%), 대만(9.107억 달러, 6,7%), 싱가포르(8.528억 달러, 6,3%), 버진아일랜드(6.824억 달러, 5%), 터키(6.603억 달러, 4,9%), 중국(5.662억 달러, 4,2%)순

○ 2015년 11개월 동안의 FDI 신규 및 증자 사업 총금액은 202.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7 증가함. 실행 자본금은 13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9% 증가함.

○ 11개월 동안의 1,855건의 FDI 신규 사업을 유치했으며 등록자본 135.5억 달러를 기록. 신규사업 유치 건수와 등록 자본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1,1% 증가함. 그리고 66.7억 달러에 달하는 692건 증자사업을 허가함.

○ 11개월 동안 제조업이 129.3억 달러로 전체 등록 자본금액의 64%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27.8억 달러, 13,7%), 부동산경영(23.3억 달러, 11,5%), 기타(21.8억 달러, 10,8%)순

○ 11개월 동안 호치민 시의 FDI 신규 등록 자본금액은 25.468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18,8%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Tra Vinh성(25.268억 달러, 18,6%), Dong Nai성(14.619억 달러, 10,8%), Binh Duong성(11.877억 달러, 8,8%), 하노이(8.131억 달러, 6%), Hai Phong시(4.911억 달러, 3,6%), Tay Ninh성(4.258억 달러, 3,1%), Vinh Phuc성(3.712억 달러, 2,7%)순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November 27, 2015]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Vietnam EPS NEWS**

2015년 11월 30일

□ 일본 투자자, 베트남 정부에 비즈니스 환경 개선 요구

○ 2015년 10월 27일, 일본상공회의소(JCCI) 산하 일본-메콩 비즈니스 협동조합(JMBC)은 호치민시 및 기획투자부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개선사항을 제안함.

○ (외국인 근로자 대상 비자발급 완화) Tsukasabun은 일본인들의 베트남 입국을 위한 비자 관련 규제 및 조건 완화를 요구했음. 2015년 1월부터 베트남의 개정 비자법 시행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출국 30일 이내에 다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함. 동 규제로 인해 베트남 출장이 잦은 외국인들은 업무에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본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및 해당 가족들의 베트남 비자 발급 조건 완화를 제안하였음.

- 베트남 공안부 관계자는 일본인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긴급용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장기체류 근로자들을 위한 장기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정책 시행을 장려하겠다고 답함.

○ (최소임금 및 초과근무) 일본 기업들은 약 15%~17%에 해당하는 연간 베트남 최저임금 상승률이 베트남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여 너무 높다고 밝혔으며, 베트남 정부가 이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서로 초과근무와 급여수준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유연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베트남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베트남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아직 다소 낮으며 최소 생계비의 80%에 불과하다고 답했음. 임금인상 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베트남 통계청 수치이며 베트남 근로자들의 실질 월평균 임금수준은 이보다 다소 높음. 2016년 임금상승률은 12.4%가 될 것임.
- 연간 허용 초과근무 시간 역시 420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임. 베트남 노동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통계청, 현지 언론 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Vietnam EPS NEWS

2015 한-베 청년인력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2015년 11월 16일

KOTRA 호치민 K-Move 센터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 공동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우수 인력 (한국인, 베트남인)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한-베 청년인력 채용박람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4일(금) / Nikko saigon Hotel
□ 주 최 : KOTRA, 주호치민총영사관
□ 참가인력
  ㅇ 한 국 인 : 베트남 유학생 및 현지대학 재학생, 졸업생 및 청년구직자
  ㅇ 베트남인 : 인문사회대, 백과대학, 락홍대, 외국어정보대, 홍방대 등 유명대학교 3,4학년 학생 및 졸업생 및 청년구직자
□ 참가기업 : 베트남 투자진출 한국기업 및 베트남, 외국계기업50여개사

2. 주요 지원 사항

□ 상담 부스 및 테이블 제공 : 3m×2m 부스 설치 및 기업 로고 부착
□ 적정 인재 발굴 및 매치메이킹
  ㅇ 구직자 이력서 접수 후 기업 채용희망 인재 선별 및 시간대별 채용상담 스케쥴 제공
  ㅇ Vietnamworks 등 유료사이트 정보를 활용한 양질의 우수인재 사전 선별
  ㅇ 한국 및 제3국 소재 구직자 면담 희망 시 온라인 화상면접 지원

3. 참가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에게 회신접수 (이메일/방문)
□ 온라인회신: kotrahcm@naver.com / 이지영 대리

4. 기타

□ 공간 제약 상 신청기업을 다 수용키 어려워 우선접수기업 위주로선정할 예정
□ 참가기업의 별도 참가비용 없음

5. 사업문의처

□ 홍성우 부관장 (aquacool@kotra.or.kr), 08-3822-3944
□ 서수민 대리, 이지영 대리 (kotrahcm@naver.com), 08-3822-3944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 적발

기사등록 일시 [2015-11-14 10:46:44]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들 중 3595명은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1156명은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으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00만원 이하 부과)하고,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해 위법 정도가 중한 7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법무부는 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자진출국 행정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불법체류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un@newsis.com

보도자료

[2015. 11. 13. 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02-784-6831

이자스민의원, 노동이주에 관한 아시아 의회 간부회의 참석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노동 이주에 관한 아시아 의회 연례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번 회의는 유엔에서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UN SDGs) 중 하나인 '이주'(Migration)에 대해 아시아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실천방안을 논의 하는 자리이다.

(★) 공식 행사명 : Asian Inter-Parliamentary Caucus on Labour Migration

이자스민 의원은 14일 네 번째 세션 발표자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각국 의회차원에서 이주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중요의제로 채택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의체는 이민자 권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아시아 전·현직 국회의원의 네트워크로, 2007년 노동이주에 대한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비공식으로 워크샵을 개최한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간부회의는 2011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아세안 외부의 다른 회원들로까지 확대되었다.

끝.

보도자료

[2015. 11. 28. 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02-784-6831

이자스민 의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난민 국적권 보장에 관한 회의 참석

전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무국적자 및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회차원의 무국적자 및 난민 문제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처음으로 남아공 의회, IPU(국제의원연맹), UNHCR(UN 난민기구) 주최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자스민의원은 11월27일(현지시간) 한국의회 대표단 일원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원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난민 국적권 보장에 관한 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의원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날 '무국적 상태 방지:모든 출생 아동에게 국적 보장'이라는 세션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를 대표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고 이번에 발의 한 법안 내용에는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라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난민 국적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국제의원연합모임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자리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발표가 계기가 되어서 오후 세션의 '진전을 이끌기 위한 혁신적 전략-소셜미디어' 시간에는 의장직을 제안 받아 직접 회의를 진행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오늘날 국적이 없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들이 처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끝.

무료이미용서비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경남 봉사미회 분들과 함께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위한 무료 이미용 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무료 이미용서비스가 한층 온기가 넘쳐났습니다.

일 시 : 2015.11.08(일) 08:40 ~ 12:40
장 소 : 센터 다목적 홀
봉사단체 : 경남 봉사미회
참여인원 : 인도네시아 외국인근로자 배드로 외 17명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시상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에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의 대표로 K-POP 부문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획득하고 돌아온 인도네시아 "코에룬" 씨의 센터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센터를 빛내준 코에룬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뛰어난 끼와 춤, 노래로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일 시 : 2015. 11.08(일) 11:00
장 소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106호
내 용 : EPS 리더간담회 및 시상식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힐링닥터스 무료진료

일시 : 2015년 11월 8일 오후 3시~ 5시30분
장소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다목적홀
힐링닥터스 군단의 한방 무료진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비를 뚫고 오시어, 평소 때처럼 밝은 미소로 한 분 한 분 진료를 마치시고 가셨습니다.
대상 인원 : 마음한의원 무료진료 25명
- 필리핀 3명, 중국 7명, 한국 2명, 몽골 1명, 우즈벡 1명, 캄보디아 8명, 인도네시아 1명, 파키스탄 1명, 방글라데시 1명

제 7차 리더간담회

2015년 11월 8일 오전 10시~ 오후 2시

▶ 토의안건 : 5
○ 귀국지원방안 논의
○ 휴면보험금 안내
○ 한국어교실 활성화 방안
○ 창업지원방안
○ 2016년 사업 반영 내용 수렴

2015년 EPS Leader 제 7차 간담회가 금일 오전10시부터 있었습니다.

5개의 토의 안건, 2016년 사업에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을 각국 Leader들로부터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업현장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2회차 STX 중공업과 함께하는 "산업현장 한국어교실" 이 있었습니다.

STX 중공업과의 사업협의를 통해 산업현장으로 매주 금요일 방문하여 한국어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일시: 2015.11.20. 17:30~19:00
장소: STX중공업 1공장 교육장
내용: 기초 한국어 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STX 중공업과 함께하는 "산업현장 한국어교실" 이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와 야근에도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시: 2015.11.27. 17:30~19:00
장소: STX중공업 1공장 교육장
내용: 기초 한국어 교육

TOPIK 시험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43회 TOPIK 시험에 응시한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매주 센터를 찾아주셔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해 바쁜 근무시간과 일상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력분들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일 시 : 2015. 11.15(일) 09:00~17:00
장 소 : 경남대학교 경상관
인 원 : TOPIK 1 (45명)
TOPIK 2 (17명)

TOPIK 합격증 수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42회 TOPIK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TOPIK 시험 합격증 수여식을 실시했습니다.
바쁜 회사생활에도 틈틈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회사생활은 물론 한국어 교육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어주신 외국인력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신 외국인근로자분들의 높은 합격률로 더욱 의미가 뜻깊었습니다.

일 시 : 2015년 12월06일 12:00~

장 소 : 다목적 홀

대 상 : TOPIK 시험 합격자 39명

제 6회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축제

1. 행사명 :『제 6회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축제』
2. 주최 : 통영상공회의소
3. 장소 : 통영 충무실내체육관
4. 고충상담기관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5. 상담지원 : 8명

⊙ 센터장, 상담팀장

⊙ 상담통역원 :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6. 고충상담 지원근로자 :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 일시 : 2015.11.14/토

창원병원 무료진료

2015년 11월 15일 오후 3시부터 창원병원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무료진료를 해주셨습니다.
내과, 외과, 치과 세 과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37명의 근로자가 무료혜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일일찻집 사회공헌활동

일시 : 2015.11.06(금) 12:00~21:00
장소 : 통도사 자비도량
내용 : 사회공헌활동(통도사 일일찻집)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는 11월 6일 금요일 통도사 자비도량에서 개최한 통도사 일일찻집에 참여하여 청소와 서빙등을 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10주년기념 연찬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10주년 기념 연찬회" 에 참가했습니다.
'붓다의 지혜로 사회복지를 실천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동진스님의 축사와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의 실현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겸했습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뜻깊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의 우즈베키스탄 상담통역원 "강류다" 선생님께서 표창장을 수상하셔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 시 : 11.20(금) 14:00~19:00
장 소 : 마산 웨딩그랜덤
내 용 :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10주년 기념 연찬회 '붓다의 지혜로 사회복지를 실천하자'

10월, 11월 생일파티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10월 11월 생일을 맞이한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생일 축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모두 모여 축하를 하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 시 : 2015년 11월 22일 14:50~15:00
장 소 : 다목적홀
대 상 : 10월,11월 생일인 교육회원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웬 반 홍 외 10명)
내 용 : 생일케이크, 생일축하, 기념품 증정

EPS 모바일앱서비스 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력분들의 한국생활에 필수적인 출국만기보험금, 퇴직금, 퇴직금 차액 산정에 관한 EPS 모바일 앱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력분들의 상담과 문의가 가장 많은 출국만기보험금, 퇴직금, 퇴직금 차액 산정에 관한 지식과 이를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 일 시 : 2015. 11. 22(일) 15:00 ~ 17:00
2. 장 소 : 다목적 홀
3. 참 여 대 상 : EPS 외국인근로자 및 교육회원 85명
4. 교 육 주 제 :「EPS퇴직금 모의계산」모바일(App) 서비스
- 모바일 서비스 가입, 이용 절차, 방법
- 출국만기보험금 예상 수령액 조회
- 퇴직금 산정
- 퇴직금 차액산정
- 기타 권리구제
5. 강 사 : 상담팀 김소윤 직원

* 참가자 다과 및 음료 제공

남창원농협유통센터 후원 NC다이노스와 함께하는 팀기록(득점) 적립품 전달식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남창원농협유통센터가 후원하고 NC다이노스와 함께하는 쌀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남창원농협유통센터 관계자 분들과 NC다이노스 '모창민'선수께서 전달해 주셨는데, NC다이노스 팀기록(득점) 적립품으로 407만원상당의 쌀을 후원받았습니다.
후원해주신 남창원농협유통센터와 NC다이노스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와 함께하는 김장체험 · 나눔행사

2015년도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한마당 행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와 함께 2015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하는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즐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김장 담그는 과정과 김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대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김장뿐만 아니라 김장에 빠질 수 없는 수육도 함께 즐기며 행복한 한마당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를 지역사회복지기관인 '성로원'에 전달하는 전달식도 함께 가져 더욱 의미가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일 시 : '15. 11. 29(일) 09:00~18:00
○ 장 소 : 주차장 및 106호
○ 주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 주 최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 인 원 : 외국인근로자 150명
○ 내 용 :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한마당」

1부- 김장만들기 체험
- 김장나눔 (자신이 직접 만든 김장김치 배부)
- 지역독거노인 김장나눔
2부- 부대행사 (체류지원상담, 귀국지원안내,사업장변경자 취업적응 교육)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김장나눔한마당

제목 : 임금체불 진정 상담진행과정 및 결과

중국 상담통역원 : 최영애

○상담개요

- 중국 근로자 J씨는 2015년1월27일부터 2015년3월1일까지 진동 S수산에서 근무하고 급여 150만원을 받지 못해서 2015년4월5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창원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해줌.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4월15일 노동지청에서 근로자에게 4월20일 출석요구서를 받음. 근로자는 언어문제로 센터 통역원과 함께 노동지청에 방문함. 진정인의 진술내용에 대해 통역지원함. 그당시에 사업주가 연락두절상태이므로 해결이 안됐음.
- 노동지청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에 원만하게 쌍방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처리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됨.
- 5월12일까지도 사업주가 노동지청에 출석을 안해서 민사소송에 넘어가게된상황, 근로자가 다음주에 노동지청에 방문예정임.
- 5월18일 근로자가 창원노동지청에서 연락받음. 피진정인 미출석으로 민사소송 해야됨 근로자가 노동지청에 방문해서 소송서를 작성함.
- 근로자는 2015년6월12일 체류기간이 만료되므로 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진행 해주길 부탁하였으며, 담당 감독관은 근로자에게 다시 출석요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함.
- 6월2일 센터에서 2015년7월1일 부터 소액체당금 제도 실시한다고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근로자가 노동지청에가서 임금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안내함. 6월15일 근로자의 언어때문에 마산무료 법률구조공단에 동행 방문하여 소송을 신청 하여 위임장도 신청함. 2-3개월후에 판결문이 나온다고함. 판결문을 받은후에 창원노동지청에 방문하면됨을 근로자에게 통역함.
- 8월26일 센터에서 사건수임변호사님께 전화해보니 지금 사건이 종결 안 됨, 이번달말까지 판결문 나올 수 있음, 그때 연락 해주기로 함.

- 9월17일 근로자는 임금소송이 승소할것을 판결로 종결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안내장 받음, 근로자가 통역원이 같이 방문 요청 함. 법률구조공단, 법원에 방문하여 전체발급서류 통역을 해줌.
- 10월8일 근로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서 통지서를 받음 내용확인 요청 함. 임금체불인 이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되어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으로 송치됨.
- 11월7일 근로자의 임금체납소송은 판결문이 나와서 마지막단계인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돈을 받아야함. 창원근로복지공단의 전화번호, 주소 및 탑승버스 번호까지 알려 줌.
- 11월1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을 확인해보니 주소가 고성으로 되어 있어서 재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하기로 함.
- 11월18일 체불임금 1,499,000원 입금 메시지 받음. 근로자가 통장확인 후에 센터에 방문해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겠다고 함.(이 사건은 약8개월 기간이 거쳐 종료됨)

2. 상담포인트
-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야 됨 불법체류자도 임금체불 당한 경우에 내국인과 똑같이 혜택을 받음
- 사업장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제도를 통한 구제가 가능함
- 체당금제도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금체권보장법
  파산법, 화의법, 실질적인 도산 등으로 체당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최종 3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미지급액을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보장(상시 300인 이하의 사업장 적용)
  미적용사업장: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 지급사유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한 경우
  재판상 도산 :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 및 희생절차개시 결정
- 지급요건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 지급액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
- 청구방법 : 회사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청구
-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미지급 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체당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무료로 체당금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로 2015년 7월 1일부터는 기업이 파산 등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지급명령 및 판결문만으로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국가소액채당금제도로 체불임금을 신청시 절차, 시간등이 많이 소요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1. 채무자가 임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금품청산) 제44조(월1회 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OFC 12월 행사 안내

첫째주

- 네팔기능시험지원(11/23~12/2)
- 통영시청,통영상공회의소,성동조선 방문(09:00~16:00)
- 2015년도 외국인력상담센터 전화고객만족도 조사
- 상담메뉴얼 최종검토
- 11월실적보고
- 산업현장한국어교실(5회차)-STX중공업(1공장) 교육장

둘째주

- 제4회 준주·사천지역 베트남근로자 교류의날(12:00-17:00)-한국폴리텍7대학 진주캠퍼스
- 제10회 컴쑥쑥왕 대회(14:00~)-컴퓨터실
- 마산의료원부료진료(14:00~16:00)-센터상담실
- 제 42회 토픽합격자 수여식(12:00~)-교육실
- 통영고용센터이동상담(09:30~17:00)
- EPS근로자 관리교육 지원(13:00~17:00)-통영고용센터
- 상담원역량강화교육 및 우수사례발표915:00~17:00)-다목적홀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참석(11:00)-진주,통영고용노동지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 통합워크숍(10:00~)-경주 한화리조트

세째주

- 제19회 무료이미용서비스(15:00~18:00)-교육실복도
- 마음한의원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15:00~17:00)-다목적홀
- 창원시티투어(09:00~19:00)-창원시 관내(7개소)
- 진주고용센터이동상담(09:30~17:00)
- 제44회 토픽원서 접수(14일~23일)
- 2015년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 산업현장한국어교실(7회차)-STX중공업(1공장) 교육장

네째주

- 하반기 한국어교육 성취도 평가(오전,오후)-초급,중급반 각 반 교실
- 강사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12:00-17:00)
- 통영고용센터이동상담(09:30~17:00)
- ㈜건화 사업장 안전교육(11:00~14:00)
- 산업현장한국어교실(8회차)-STX중공업(1공장)교육장

다섯째주

- 2015년 수료식 Korean Dream 한마당(12:00~15:00)-다목적홀
- 경제창업교육 실시(12:00~13:00)-다목적홀
- 12월 생일 축하 행사(15:00~)-다목적홀
- 진주고용센터이동상담(09:30~17:00)
- 제43회 토픽시험 합격자 발표(15:00~)
- 2015년 종무식

OFC와 함께해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후원 해 주셨습니다.

일 자	후 원 기 관	후 원 물 품
2015.11.16	푸드뱅크	음료11box
2015.11.27	남창원농협(NC다이노스)	쌀 80개

< 후 원 계 좌 >

경남은행 513-07-01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